

# 함께가는 길

Fired Painting, Glazed ceramic,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김해, 2007





<한국 현대 도예 예술의 선구자>

# 신상호 작가

‘도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생소하다. 과거의 것을 찾아 전통을 이어나가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영역에서 신상호 작가는 이것을 머물게 하지 않았다. 도예의 범주를 넘어선 작가의 작업은 예술, 건축 작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한계를 무너뜨린다.

신상호 작가는 1947년생으로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했다. 50여년 간 흙이 가진 가능성을 탐구하고 현대 도예 예술의 깊이를 더하며 혁신을 이루었다는 평을 받는다. 도자기판에 그림을 그려 가마에서 구운 ‘구운 그림 (Fired Painting)’은 1979 공간대전 도예상 및 1988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그의 작품은 런던 대영박물관,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벨기에 왕립 마리몬트 박물관, 파리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Structure & Force—Horse, Glazed ceramic, 2006–2007A (2)

안녕하세요 작가님! ‘함께가는 길’ 독자분께 간단한 소개와 근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4년과 산업미술대학원장 2년을 지내고 나서 임기를 5년 남겨놓고 명예퇴직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작업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스스로 퇴직을 결심했고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꽤 어려웠지만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생각해야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부터 시작해 가족, 지인까지 달력에 빼곡하게 써놓은 주변 사람들의 생일을 챙기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만큼 시간이 생기더군요. 다음으로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정리했습니다. 그 어느 장례식, 결혼식도 가지 않았어요. 동생 결혼식에도 가지 않아 옥을 먹기도 했었네요. 이런 생활이 꽤 오래 되었다 보니 지금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간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웃음) 주변에서 성격이 이상한 놈, 괴팍한 놈이라는 말도 종종 들었지만 결론을 짓자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에 오롯이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작가님은 이미 30대에 ‘현대 도예 예술의 선구자’라고 불릴 정도로 인정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예의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신 건가요?

제가 65, 66년도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6.25 전쟁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혼란스럽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향아리나 그릇 같은 기물들이 필요했죠. 학교에서 한 도자기 가마에 견학을 갔는데, 새벽 4시에 작업을 시작해 해가 떨어야 비로소 끝나는 옹기장들의 모습이 무척 감명 깊었습니다. 맨손으로 그릇을 빚는 것이 마치 아이들이 하는 흙장난 같지만, 그 흙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그 당시 사회 환경이나 집안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기도 했지요. 제가 도예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나 판사가 아니라 옹기쟁이를 만들었다고 우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내가 선택한 몫이예요. 그래서 늘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흙을 만지는 게 좋았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 PROFILE

신상호 申相浩 SHIN, SANG HO

- 1947 서울 생
- 1973 B.F.A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
- 1976 M.F.A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예과 졸업
- 1981-0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수 재직
- 1998-02 홍익대 미술대학 학장
- 2002-04 홍익대 산업미술대학 대학원장
- 2006-08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클레이마크 김해 미술관장

###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국제도예학회 회원 (I.A.C)

### 개인전

- 2020 신상호展, 양주시청 감동갤러리, 경기  
OPEN STUDIO : 신과, 부곡스튜디오, 경기
- 2019 OPEN STUDIO, 부곡스튜디오, 경기  
신상호 개인전, 카라스갤러리, 서울
- 2018 OPEN STUDIO : Tree of Life, 부곡스튜디오, 경기
- 2016 OPEN STUDIO : THE CONTAINER, 부곡스튜디오, 경기
- 2015 OPEN STUDIO : The Collector, 부곡스튜디오, 경기
- 2014 신상호 설치전 : Vicissitude of Things, 금호미술관, 서울  
SHIN SANG HO Solo Exhibition, 이화익갤러리, 서울  
SHIN SANG HO : Final Frontier,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13 SHIN SANG HO : Final Frontier,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수상

- 2002 홍조근조훈장
- 1988 국무총리 표창
- 1979 공간대전 도예상 수상
- 1968 한국 산업미술가협회공모전 특선  
국제도예학회 회원 (I.A.C)

### 작품소장

- 2009 Lowe Art Museum, FL, 미국
- 2001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이천 세계도자센터, 경기도 이천
- 1997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프랑스
- 1996 왕립 마리몬트 박물관, 벨기에 브뤼셀  
기후현 현대도예미술관, 일본 기후





Fired Painting 지적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Glazed ceramic,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메인타워, 서울, 2008 (2)

**작가님께서 예술의 영역 뿐 아니라 건축의 영역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건축과 건물이라는 것은 온 세계가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양식입니다. 실내와 실외가 있고, 붙여야 할 그림이 있고 놓아야 할 조각이 있어요. 캔버스에 그린 그림은 집 안에만 걸게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 손상되기 쉬우니까요. 저는 집 밖에도 그림을 걸면 어떨까 하다가 건축과 도예가 만나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일 형식의 도자를 사용한 건축 도자 양식(clayarch, 클레이아크)을 고안했습니다. 건축재료에는 한계가 있고, 페인트의 색도 뻥해서 싫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불이 그린 그림은 신비한 색감이 나오고 지루하지 않아요. 한번 불이면 깨서 떼어버려야 하는 기존의 타일이 가진 가장 큰 한계인 탈부착 문제도 해결해 특허도 받았습시다. 흙(clay)과 건축(architecture)의 만남이 이루어진 셈이죠. 흙이 과학을 만나면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또 흙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기도 해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재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작업을 많은 후배들과 같이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열린 시각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보면 도예만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와 분야로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작가님에게 ‘흙’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또 작가님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흙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흙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사용하는 물건 모두를 어우를 수 있는 무한한 자원입니다. 흙과 물이 합쳐져 점력이 생기고, 그것이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단단해지며 생명력을 얻는 것. 도예라는게 얼핏 보면 쉽고 만만해 보이는데,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운 것이 흙이더군요. 지금도 흙은 저한테 두려운 존재예요. 작가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시대정신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의 오늘이 언젠가는 고려시대, 이조시대처럼 옛날이 되어버리니까요. 제가 예전처럼 계속 향아리만 만들고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보수적이고 편협한 시각은 미래를 살아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한가지 더, 지속적인 작품 활동이 중요합니다.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깨달음이 생겨요. 마치 수련을 오래 하면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것처럼요. 내 선생은 나 자신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속에서 나는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Dream of Africa-Totem series, glazed ceramic, 2007



2015 Open studio\_The Collector1

**영국에 계실 때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미술을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으며, 어떻게 작업과 연결시키게 되셨나요?**

95년도에 영국 Royal College of Art에 초빙교수로 갔을 때 일이네요. 그때 저는 샤머니즘과 원시미술에 심취해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사는 곳 근처였던 런던의 Royal Museum에서 아프리카전이 열렸는데, 처음 가보고 나서부터 그 후로 매일 매일 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저와 코드가 딱 맞더군요. 그 후로부터 15년 이상 줄곧 아프리카 미술품을 수집했고, 자연스럽게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순수함, 동물들과의 교감은 저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 작품에 나타나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은 아프리카 미술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함께가는 길’ 독자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수집해 보세요. 그게 비싼 것이든 아니든요. 수집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적인 활동일 뿐 아니라 직업과는 다른 아주 건전하고 좋은 취미 생활이 되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입하는 일은 굉장히 exciting한 경험이에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술적인 안목이 길러집니다.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술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예술 애호가이자 열렬한 컬렉터가 되어버린 김희근 회장님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요즘에는 제 스튜디오가 이북과 가까워서 버려진 군수용품, 철재 구조물 등 전쟁 부산물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제 컬렉션이 이제는 저의 작업 주제가 되었어요. 물건을 수집하는 행위 자체와 나의 컬렉션, 즉 오브제 속에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곧 예술적인 영감과 작품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수집을 통해 내 안의 나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product-pillbox 2012



Dream of Africa(lamber), cast glass, 2003  
김희근 회장 소장작품



Head, glazed ceramic, 1991  
김희근 회장 소장작품





발행일 2021년 4월 26일  
발행인 김화근  
발행처 벽산엔지니어링㈜  
기획·편집 벽산엔지니어링 홍보실 Tel. (02-767-5563)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태평양물산 19층

Fired Painting 지적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Glazed ceramic,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메인타워, 서울, 2008